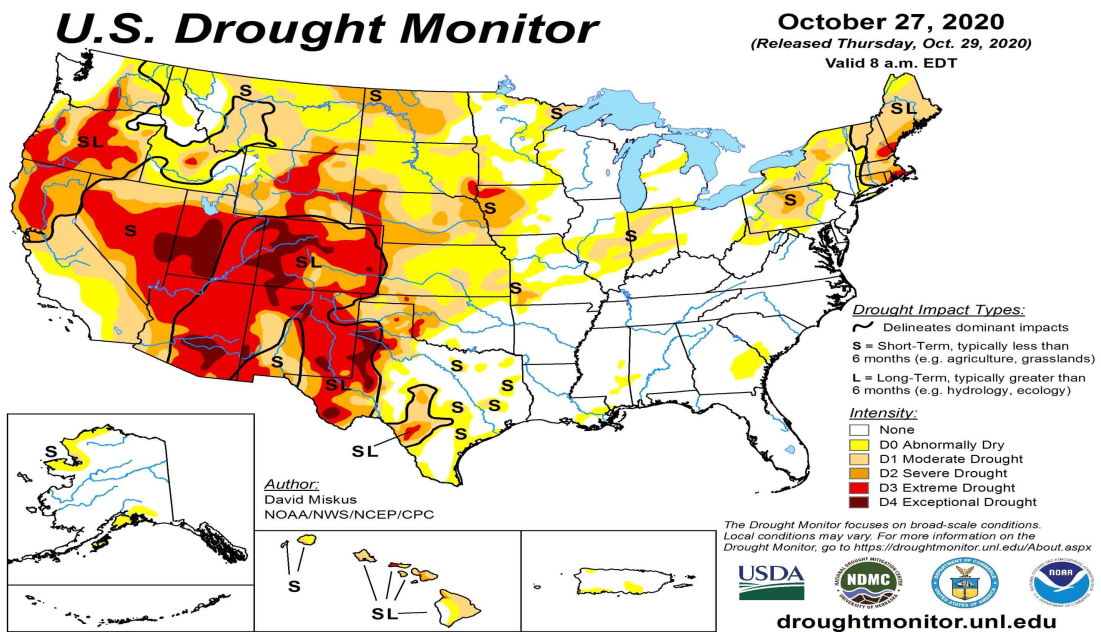


11월 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44)

□ 미국 기후 현황(10/25~11/31)

2등급 허리케인 제타가 10월 28일 중부여름시간 오후 4시 경에 시속 110 마일의 지속적인 바람을 품고 코코드리 근처의 루이지애나 남동부 해안으로 이동했다. 제타가 전방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홍수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열대성 폭풍의 힘을 가진 바람(시속 39~73 마일)이 멕시코만 해안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애팔래치아 산맥 남부를 가로질러 대서양 해안 중부까지 퍼졌다. 올해의 많은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들과 마찬가지로 제타는 면화, 대두, 및 사탕수수 같이 수확되지 못한 작물들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주말에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로키 산맥, 평원 및 중서부 지역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0° F 낮았던 기록적인 한파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콜로라도처럼 먼 남쪽은 기온이 0° F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추운 날씨가 동쪽으로 뉴잉글랜드로 확장되었다. 대조적으로, 남동부에서 계속된 온기가 주간 기온을 평년보다 5° F 상승시켰다. 더 서쪽에서 로키 산맥과 평원의 중부 및 남부 구역 전역의 겨울같은 폭풍 전선이 발생시킨 비, 진눈개비, 얼어붙은 비, 및 눈이 가축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가뭄에 시달린 겨울 밭에게는 도움을 주었다. 나중에 그 폭풍은 부분적으로는 제타의 잔존 세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남부의 중앙에서부터 오하이오 계곡까지 폭우를 촉발했다. 나라의 나머지 대부분은 춥고 건조한 날씨를 겪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급증하는 더 차가운 공기에 돌풍이 동반하면서 두 번의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게 되었다. 지난 주에 평원 북부, 중서부 위쪽 및 북서부 내륙을 가로질러 내린 눈이 침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덮인 눈은 시기적절하게도 출현 중인 겨울 밭에게 유익한 수분을 제공했고 단일 효과를 내었다.



### □ 농업 현황 요약 (10/26~11/1)

미국 중부 지역의 대부분에서 기록된 기온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평원, 로키산맥 및 남서부 일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 F 이상 낮았다. 대조적으로 대서양 중부와 남동부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된 기온은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나라의 서쪽 절반 대부분은 계속 건조했지만 루이지애나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제타가 애팔래치아 산맥과 대서양 중부를 가로질러 달리면서 미국 남부와 동부의 일부에 강풍과 비를 가져왔다. 미시시피 계곡 하류와 평원 남부의 일부는 총 5인치 이상의 강수를 받았다.

### □ 세계 기후 현황(10/25~10/31)

■ 유럽: 빠르게 움직이는 일련의 폭풍 전선이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유럽 동부까지 광범위한 소나기들을 발생시키면서 최근에 일정 기간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겨울철 재배지에서 일주일 동안 내린 강수량은 5~50 mm로 집계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최북단 및 최서단 재배 지역과 산악 지역 (포르투갈, 알프스와 인접 지역 및 루마니아 중부)에서 보고된 총강수량은 이보다 더 높았다 (50~100 mm). 지난 30일 동안의 지나치게 습한 조건 (평년의 200~400%)이 야외 작업을 지체시켰고 불가리아 서부에서 폴란드와 독일 북동부까지 침수지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수분 공급이 겨울 작물의 활착을 위해서 여전히 유리했다. 또한, 그리스 중부 (테살리)에서는 폭우 (지역적으로 25 mm 이상)가 또 한 차례 시기를 벗어나 내림으로써 수확되지 못한 면화의 품질이 더욱 저하되었는데, 이 작물은 9월 중순 이후로 개화 및 성숙기 중에 시기적절하지 못한 폭우에 에워쌓여 왔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높았는데 평년에 가까운 기온은 최남단 재배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서부에 아주 필요했던 비가 내려서 심각한 가뭄이 완화되었고, 늦철 운기 덕분에 생산자들은 겨울 밀 활착을 위한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었다. 느리게 움직이는 요란 하나가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인근 지역에 매우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소나기 (2~40 mm)를 발생시켜서 겨울 밀 정착을 위해서 아주 필요했던 토양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이번 주에 내린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장기 수분 결핍을 해소하려면 더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11월 1일 현재, 8월 5일부터 내린 주(州)의 평균 강수량은 볼고그라드 (남부 지구의 북부)와 스타프로폴 (북카프카즈 지구) 두 곳은 평년의 25%, 로스토프 (남부 지구의 중앙부)는 평년의 35%, 크라스노다르 (남부 지구의 남서부)는 평년의 50%에 머물렀다. 몇몇 지역이 건조하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중부 전역에 가벼운 소나기 (2~13 mm)가 만연했다. 9월 말에 적기에 내린 폭우와 이어서 10월 상반기에 내린 소나기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주요 겨울 작물의 여름 가뭄이 경감되었다; 그 결과 겨울 보리, 유채, 및 밀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비슷하게 몰도바에서는 늦은 겨울과 10월 상반기 동안의 폭우로 인해 겨울 밀 전망이 반등했다.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7° C 높아서 (먼 남쪽에서 가장 따뜻했음), 최근 수분이 개선된 지역들에서는 겨울 밀 정착 지대가 확장되었다.



■ 동아시아: 동중국에 대체로 가벼운 비 (10 mm 미만)가 내린 중에, 남부에는 더 강한 소나기 (10~25 mm) 포켓들이 있었다. 그 소나기들이 양쯔 계곡에서 토양 수분을 유체의 출현과 활착에 알맞게 유지해주었다. 한편, 화북평원 대부분은 여전히 건조해서 밀의 적절한 출현 수준을 확보하려면 추가 관개가 필요했다. 더욱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3° C 높아서, 서리가 내리는 날씨는 북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중에,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 내린 젖은 비 (15~50 mm 이상)가 발아 또는 출현 중인 여름 작물을 위해서 수분 공급량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다소 일시적으로 파종이 지연되었다. 북부 재배 지역에서는 그 비가 지역의 밀 수확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남쪽에서는 성숙이 늦은 겨울 작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비슷하게 빅토리아와 남호주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가 종실 비대 중인 밀, 보리 및 캐놀라에게 유익하게 작용하여 작물 전망을 양호 및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은, 서호주 내의 건조한 날씨가 겨울 작물의 성숙과 수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미숙 작물들의 수확량 잠재력은 제한했을 수 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4° C 높아서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성숙을 재촉했다. 반면 호주 남부와 동부 대부분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 C 낮아서 작물 발달 속도를 늦추었다.

■ 아르헨티나: 지역적으로 내린 폭우가 여름 곡류, 유지작물 및 면화의 발아와 활착을 위해서 시기 적절했다.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와 코리엔테스 서부 전역에 내린 총 강수량은 10~50 mm였고 지역적으로는 더 높았다; 코르도바 남부와 그 주변의 다수확 농지에 기록된 강수량은 50 mm를 넘어갔다. 많은 생산자들에게 그 비는 2주 연속 내린 아주 필요한 비였다. 그 수분이 늦게 발달하는 겨울 곡류들에게는 유익하겠지만 대부분의 작물은 초기 가뭄으로 인해 수확 잠재력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겪었다. 더 습한 조건들로 인해서 그 지역은 더 선선해져서 (평년보다 최대 2° C 낮은 주간 평균 기온) 이전보다 증발산 속도를 더 낮추었다. 차코 서부와 그 주변에서 낮 최고 기온은 낮은 및 중간 20도대 (섭씨)에서 낮은 40도대 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29일 현재 옥수수는 36% 파종되어 작년 속도와 비교해서 1 포인트 앞섰다; 코르도바에서는 야외 작업이 4 포인트 진전되어 (20% 파종됨) 작년 속도보다 12 포인트 뒤쳐졌다. 해바라기 파종은 11 포인트 진전으로 51% 완결되어 작년 속도와 같았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전역에서 산발적이면서 지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어 대두의 파종 속도가 빨라졌다. 몇 개의 건조 포켓이 남아 있는 중에 강우는 가변적이었지만 마토 그로소에서 동쪽으로 미나스 제라이스와 바히아 남부 전역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100 mm에 달했다. 비슷한 양이 내륙 북동부 (토칸티스와 인근)에 기록되었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은 낮은 및 중간 30도대 (섭씨)에 도달하여 높은 증발 손실율을 유지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10월 30일 현재 대두 파종은 29 포인트 진전으로 54% 완결되어 작년 속도보다 28 포인트 뒤쳐졌다. 그밖에 알맞은 비 (25 mm 이상)가 동쪽으로 파라과이에서 마토 그로소 도 술의 남부까지 확장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상파울로에서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 전역으로 소나기가 널리 산발적이면서 가볍게 내려서 많은 위치에서 기록된 강우량은 10 mm 미만이었다. 밀 수확에 도움이 되는 한편 여름 작물 재배가 증가하면서 남부 농업 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0월 26일 현재 밀은 90% 수확되었다; 한편 첫 작물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92% 및 61% 심겨졌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10월 29일 현재 밀이 60%가 수확되었다고 알려져서 5년 평균치보다 14 포인트 앞서 있는 반면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72% 및 7% 심어졌다.